

# 의복압 경감 브래지어에 관한 연구

박 유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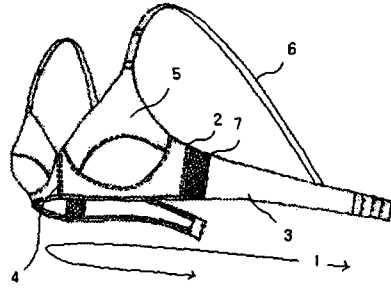
서일대학 의상과 부교수

국내 언더웨어 업체 현황은 대부분이 브래지어의 일관된 치수 체계 및 치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브래지어 치수설정 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여성도 20%미만인 실정이다. 언더웨어 업체들 간에는 물론 같은 계열사내의 브랜드들 간에도 기준이 일정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로 인해 국내외 소비자들은 자신의 치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이 20% 이내에 머물고 있다.

쾌적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브라 총장은 추총장(브라의 훅(hook)에 500g 추를 달아서 첫 번째 아이(eye)에서 훅까지를 측정한 길이)에 의해 패턴을 설계하고 있으며, 젖가슴아래둘레의 총길이보다 약 16~ 20%를 짧게 제작하고 있다. 이러한 브래지어 총장이 인체에 착용되었을 때 길이 자체가 너무 짧거나 신축성이 적어 의복압이 25g/cm<sup>2</sup>~30g/cm<sup>2</sup>이상으로 증가하면 인체의 특정부위에 압박을 주게 되어 동작을 구속하고 생리 및 순환 기관에 악 영향을 미치고 피로를 증가시키게 된다(일본 군제사, 정명선,2002). 리로이 영(V. Leroy Young)은 사람이 앉았을 때 흉곽 밑 가슴둘레는 대략 3인치(inch)확장된다고 했으며 그의 실험에서 많은 가슴성형 수술 환자들이 총장 치수가 큰 브라를 착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내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202명의 실험 결과, 앉은 자세에서 직립자세보다 평균 2cm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박유신,2002). 또한 선행연구에서 몰드컵의 기본형과 누디 브래지어의 와이어 부위의 의복압이 직립과 앉은 자세 모두에서 20g/cm<sup>2</sup>이상으로 최고 43.43g/cm<sup>2</sup>까지 나타났다. 이에 스트레스, 피부발진, 유방암 등의 유해 요소인 브래지어 의복압 요소를 해결하고자 브래지어 날개 부위에 움직임에 따른 길이 조절 장치를 고안하여 제작하고자 한다.

<그림 1>은 본 연구에 따른 의복압 경감 브래지어를 도시한 것으로, 매쉬 테이프가 연결된 브래지어이다. 이 브래지어는 브래지어 착용과 관련된 신체부위의 굴곡 및 신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액와(腋窩) 아래 부위에서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브래지어 총장이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원단 및 부자재제품에서 선행 연구가 총장을 5cm증가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기존 신장에서 7.93%이상 신장되는 원단 및 부자재 사용이 바람직하다.

\* Corresponding Author : tricia4@hanmail.net



<그림 1> 의복압 경감 브래지어